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제고 TV 다큐멘터리
조심조심 코리아!

[2014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사례발표]

C O N T E N T S

I . OBS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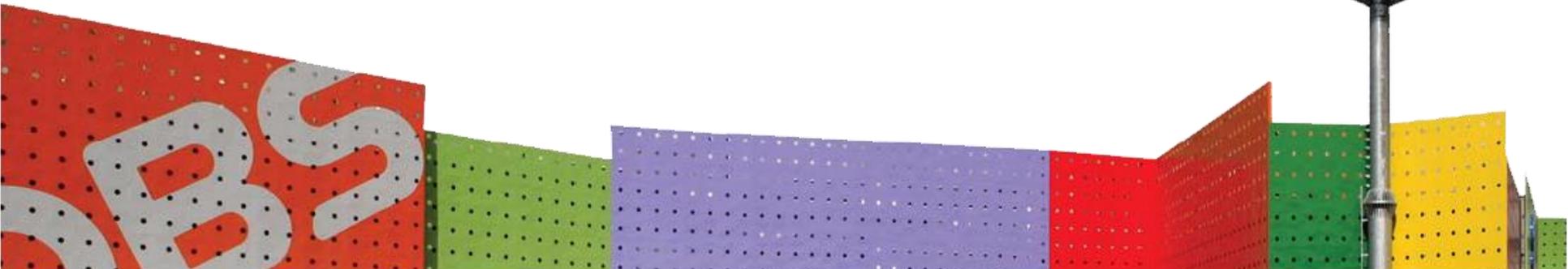
II . 공모사업 추진배경

III . 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

I . OBS 소개

2007년 12월 28일 개국한 OBS 경인TV(주)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수도권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OBS경인TV(주)는 희망과 나눔을 방송 경영의 모토로,
경인지역 대표 방송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힘이 되고자 더욱더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1) 전체 가시청권

- 서울 지역: 케이블 방송(SO)을 통한 송출
- 경기남부: 광고산 송신소 / 아날로그 CH4, 디지털 CH8-1
- 경기북부: 케이블 방송(SO)과 용문산 송신소 예정
- 인천전지역: 계양산 중계소 / 공중파 CH21

2) OBS 경인TV 시청 가능 인구 수

- 서울/경인 지역: 2,500만명

3) OBS-W 전국시청 가능 인구 수

- 지역 케이블 SO (MSO+SO) 70개사
- IPTV (KT, SKB, LGU+) 3개사 / 전국(100%)
- 스카이라이프 1개사 / 전국(100%)
- 전국 지역: 1,500만명

4) 총 4,000만 인구 시청 가능



서울·경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까지 Coverage하는 넓은 방송권역

채널안내 032 670 5500

인천 : 강화/남동/동구/서구/옹진/중구 13 8-1 13 | 계양/부평 15 17 55 | 남구/연수구 17 17
 경기 : 과천/광명/군포/수원/시흥/안성/안산/안양/오산/용인/이천/의왕/평택/화성 13 8-1 13 | 김포/부천 15 17 55
 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 29 30 3 13 | 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여주/청평/하남 54 3
 고양/문산/파주 30 3 | 분당/성남/판교 14 17 | 스카이라이프(경인지역) : 인천, 경기 4

채널번호 구분

- 아날로그
- 디지털
- 스카이라이프

사업추진조직

· 총 12명의 방송전문 제작인력 참여

순 번	성 명	주요 담당 업무	참여율
1	박태진	사업 총괄	100%
2	김영진	사업 담당	100%
3	윤재철	회계 정산	100%
4	공태희	프로그램 제작(기획)	100%
5	김희성	프로그램 제작(기획)	100%
6	정철권	프로그램 제작(연출)	100%
7	유선희	구성작가	100%
8	이병희	카메라감독	100%
9	최인휴	프로그램 제작(조연출)	100%
10	이보라미	구성작가	100%
11	김혜빈	서브작가	100%
12	손주민	카메라감독	100%
합계		12 명	

II. 공모사업 추진배경



지난 몇년간 빈번하게 발생한 기업들의 대형 안전사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

구미 휴브글로벌社
2012년 9월 27일
5명이 사망한 사고로
안전수칙 불이행과
사후 안전대책 미흡으로
사고피해 확산



화성 불산 누출사고

화성 삼성전자
2013년 1월/5월
담당직원들의 무방비 대응
및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피해 발생



청주 폐다이옥산제 폭발

청주 LG화학
2012년 8월 23일
제조에 사용된
폐 다이옥산 드럼통
폭발로 3명 사망



당진 제철소 질식사고

당진 현대제철
2012년 9월 이후
9건의 사고로 13명이
사망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의식 불감증이 원인이
되어 사고 발생

여타 대형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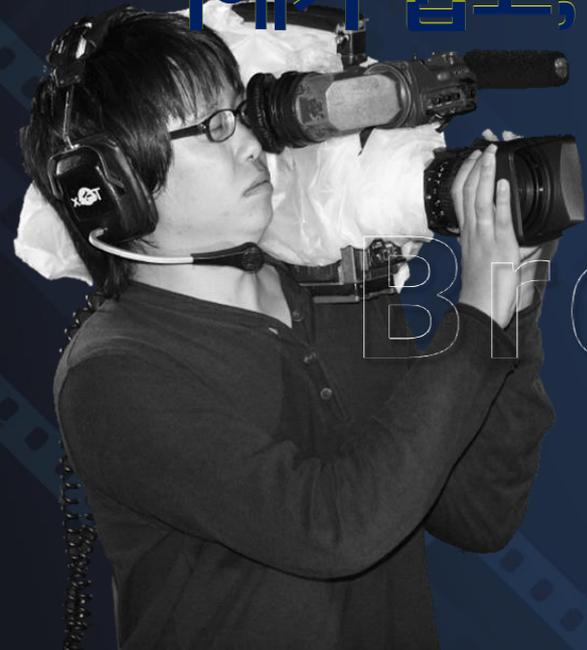
기업들의 안전의식 불감증 및 안전교육의 부재



기업들의 안전의식 불감증과 안전교육 부재 해결을 위한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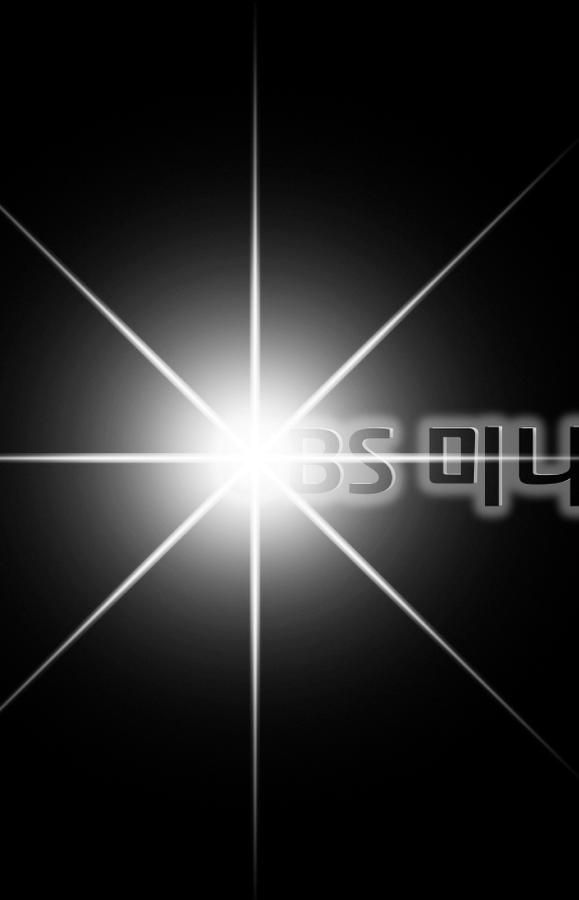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과 OBS는
시각과 청각을 통한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방식,
방송을 통한 정보전달, 교육기회 제공
이해가 쉽고, 파급력 있는 안전문화 메시지 전달

Broadcasting





III. 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



BS 미니다큐 시리즈 **조심조심 코리아**

- ✓ 방송기간: 2014년 6월26일(목)~9월4일(목) / 회당 15분
- ✓ 방송횟수: 총 40회 (주4회 X 10주 = 40회 / 본방송 10회 + 재방송 30회)
- ✓ 방송시간: 매주 목 오전 7시(본), 오후 7시(재), 수 오후1시(재), 토 오후4시(재)
- ✓ 방송내용: 안전문화 우수기업을 탐방, “기업들이 안전문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시켜가고 있는가”를 집중조명하는 미니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조, 건설, 서비스업종 분야별 산재증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문화의식 제고



출연사업장

- 01회: 현대백화점 충청점
- 02회: (주)일 (금형업체) / 경기도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 03회: 동우 화인켐(주) 첨단 디스플레이 공장 / 평택 소재
- 04회: 포스코 건설 (법무연수원 건설현장) / 충북 진천
- 05회: (주)한독 (제약공장) / 충북 음성군
- 06회: 듀폰코리아 (화학공장) / 울산광역시 남구
- 07회: 성동공업사 (절삭가공, 제조설비 부품공장) / 경남 양산시
- 08회: SK건설 (절삭가공, 제조설비 부품공장) / 수원시
- 09회: 삼성전자 광주공장 / 광주광역시 하남공단
- 10회: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화력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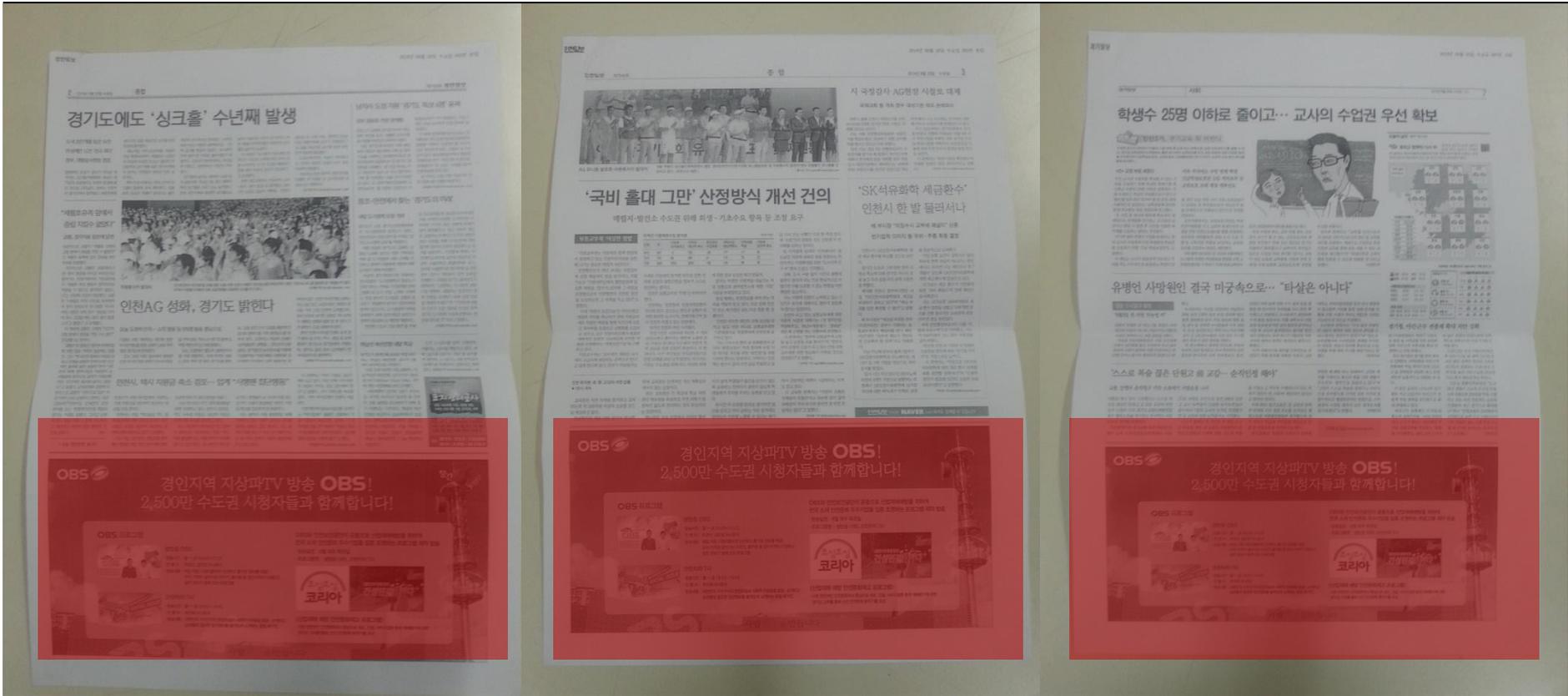
가시청권인구수	OBS 해당시청률	제작 편수	방송 횟수
2,400만명 *	0.6% *	10편 *	편당 4회

576만명에게 안전 문화 정보·교육 메시지 노출

경인일보
2014년 8월 20일

인천일보
2014년 8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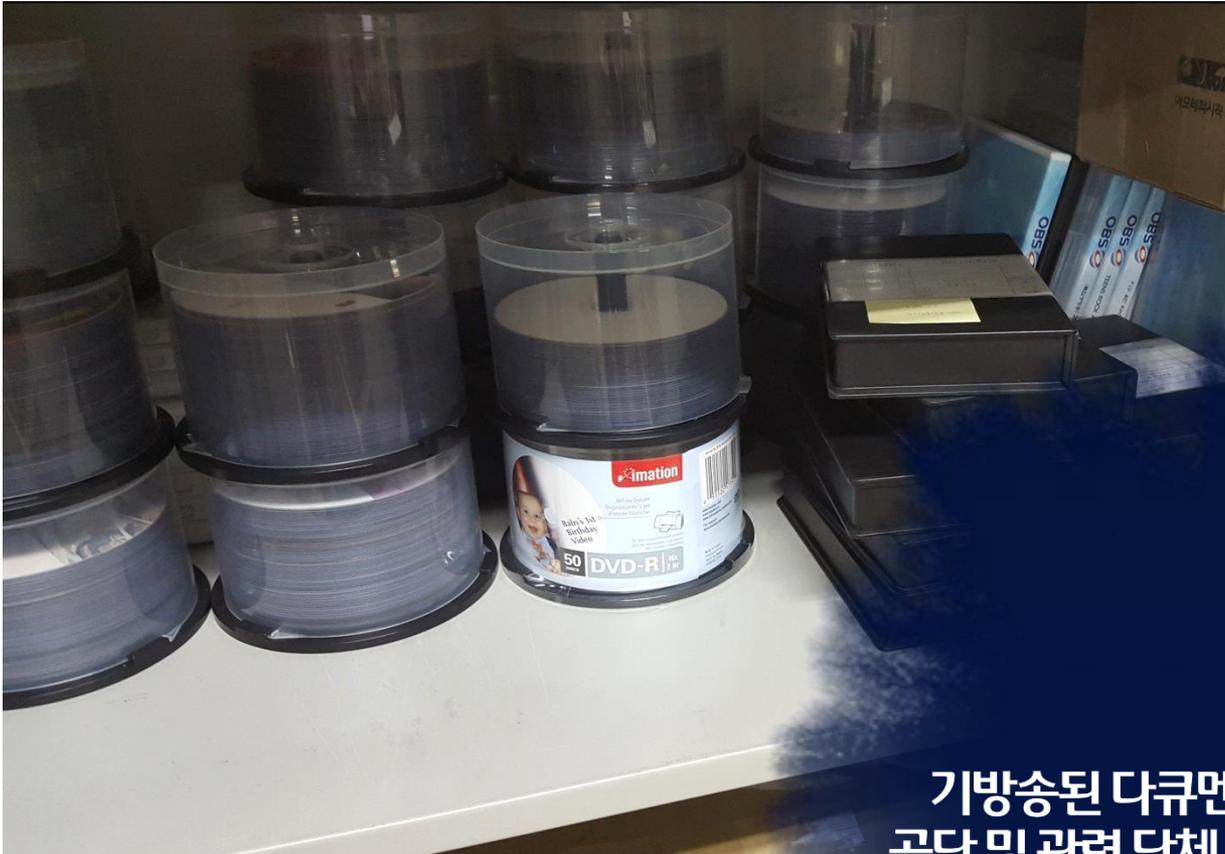
경기일보
2014년 8월 20일



“조심조심코리아” 프로그램 홍보 광고 게재

The screenshot shows the OB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OBS', 'OBS 방송이 궁금하다', '면회', '이벤트', '계정안내', '로그인', '회원가입', and '시청자센터'. Below this is a search bar and a purple navigation menu with categories like '다시보기', 'OBS플러스', '뉴스', '교양', '다큐', '예능·드라마', and '특집'. The main banner features a man in a suit with the text '명불허전' (The Legend) and '명사들의 꿈을 이룬 이야기' (The story of famous people who achieved their dreams).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veral content blocks: a '뉴스' (News) section with a list of items, a '라이프' (Life) section, and a '다시보기' (Replay) section. At the bottom, there i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and a '코너 모음' (Corner Collection) section with a large red banner for '조심조심코리야! 안전앞에 늘 겸손하세요' (Be careful, Korea! Always be humble in front of safety).

산재예방 안전문화 제고 TV프로그램 10편 다시 보기 서비스 무료 제공



기방송된 다큐멘터리들을 요약재편집,
공단 및 관련 단체, 조직의 사업·교육에 활용
시청각교육CD 제작 1,000매 배포

전체 산재 근로자 수

2009년 : 9만5천8백6명

2014년 : 9만1천8백2십4명



<2014년 산업재해 통계>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 수

2009년 : 5천2백2십2명

2014년 : 5천5백8십6명 (88명 死)



<2014년 산업재해 통계>

Background...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와서 실망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제일 크게 느끼게 같은 민족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다해요.”
〈중국 근로자, 남〉



“한국 오기전에 인사하는 말, 한국풍습, 한국문화, 송금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한국 와서야 친구 통해서 이것저것 물어 안전상식들을 알게 되었어요”
〈베트남 근로자, 남〉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게 큰 도움 됐어요... 일하다가 기계가 멈춘적이 있는데, 고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교육 안 받았으면 아마도...”
〈필리핀 근로자, 남〉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이나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

Solution...



안전보건공단과 OBS는 지난 7월 9일 코엑스에서 녹화했던 외국인 근로자 참여 안전상식 퀴즈대회를 시작으로, 기획보도, 공익캠페인 등 다양한 방송 형태를 통해 산재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 경각심 고취 및 4대 안전수칙 등 안전과 관련된 필수정보를 전달하고 수도권 시청자들과 공유할 예정



감사합니다.